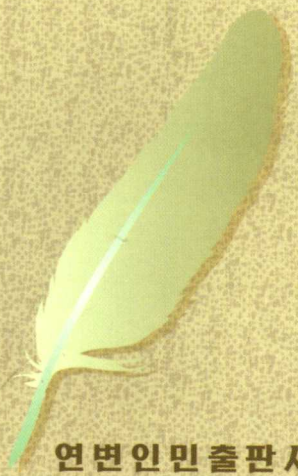
리혜선, 손문혁 정리
리홍규, 김기형, 김호근 감수

연변작가협회

YAN BIAN ZUO JIA XIE HUI

대사기

DA SHI JI



연변인민출판사

리혜선, 손문혁 정리
리홍규, 김기형, 김호근 감수

연변작가협회 대사기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延边作家协会大事记/延边作家协会编. —延吉：延边人民出版社，2006.10
ISBN 7-80698-781-9

Ⅰ.延... Ⅱ.延... Ⅲ.作家—协会—大事记—延边朝鲜族自治州—1956～2006—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I2-2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19413号

延边作家协会大事记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http://www.ybcbs.com)
印刷：吉林省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10.5 字数:240千字
标准书号：ISBN 7-80698-781-9 / I · 117 (民文)
版次：2006年10月第1版 2006年10月第1次印刷
印数：1—2000册 定价：2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우리는 력사와 후세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50년 세월의 깊고열은 자욱자욱을 파헤쳐 문학비운의 시대와 희로애락의 세월을 기록한 이《연변작가협회 대사기》를 연변작가협회창립 50돐에 헌례하게 되였다.

《연변작가협회 대사기》는 우리 문학의 50년의 우여곡절과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우리의 력사를 아로새긴 하나의 리정비로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만한 우리 문학의 보고서이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2006년 3월 24일 연변작가협회 당조, 주석단 련석회의를 사회하는 허룡석

연변작가협회 임직원들, 앞줄 왼쪽으로부터 손문혁(간사), 허룡석(제1책임자, 당조 부서기), 서진청(검직부주석), 우광훈(검직부주석), 뒤줄 왼쪽으로부터 임만설(부기원), 복미란(판공실 주임), 윤옥주(창작련락부 간사), 리예선(문학창작실 주임).

연변작가협회 리퇴직 직원들.
왼쪽으로부터 류원무(전직작가), 림원춘(전임겸직부주석, 전직작가), 조성일(전임전직주석), 리홍규(전임전직부주석), 김기형(전임전직부주석), 양범(창작련락부 간사)

《연변문학》 월간사 임직원들. 왼쪽으로부터 리영애(편집), 류흥식(편집), 김삼(제1책임자, 부주필), 조경옥(부기원).

《연변문학》월간사 명예퇴직, 정년퇴직 직원들. 왼쪽으로부터 홍천룡(편집), 김응룡(편집), 김동호(편집), 리상각(전임주필, 전임경직부주석), 박춘자(부기원)

《천지소소설》잡지사 직원들. 왼쪽으로부터 리연혜(편집), 추려양(편집),류덕창(전임주필, 퇴직), 황령향(주필).

기관간행물

작품

작품

작품

연변작가협회 기관지《연변문학》월간, 《천지소소설》잡지와 최근년래 출판된 연변작가협회 회원들의 작품.

앞에 하는 말

허룡석

연변작가협회(원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1956년 8월 15일에 그 성립을 세상에 고한지도 어언 반세기란 세월이 흘렀다.

연변작가협회는 설립된 그날부터 파란만장한 중국력사의 정치운동속에서 무시로 덮쳐드는 세찬 풍랑을 고비고비 헤가르며 장장 50년간 연변문단의 년륜을 또박또박 아로새겨왔다. 우리는 력사와 후세에 대한 책임감을 안고 50년 세월의 깊고 옅은 자욱자욱을 파헤쳐 문학비운의 시대와 희로애락의 세월을 기록한 이 《연변작가협회대사기》를 연변작가협회 설립 50돐에 헌례하게 되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지나온 반세기를 하나하나 반추하노라니 자연 감개가 무량해진다. 연변작가협회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다. 《반우파투쟁》, 《문화대혁명》 등 복잡다단한 정치운동시기마다 연변작가협회는 전국의 작가협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 몸부림을 쳤다. 수많은 작가, 시인들이 창작의 황금시기에 당치않은 정치모자를 뒤집어쓰고 창작자유, 인신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다. 연변작가협회도 정치운동의 중점단위로 되여 전체 직원중 근 절반이 《반혁명분자》, 《우파분자》로 몰렸고 한시기 해산되기도 했으며 우리 문학은 여지없이 짓밟혔었다. 하지만 연변작가협회는 다시 일어났으며 하나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조선족 및 기타 민족 작가들을 응집하여 문학정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특색이 짙고 시대성이 강하며 예술성이 비교적 높은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거세찬 물결을 타고 세계가 주목할만한 고속행진을 하고있는 이 력사적인 격변시기에 우리의 문학사업은 더 큰 발전을 가져왔다.

연변작가협회는 50년동안의 빛나는 려정을 걸어오면서 7차의 대표대회를 거쳤고 전국각지에 600여명의 회원을 두고있다. 그동안 김창걸, 김학철, 리욱 등 우수한 조선족작가들과 장소천, 하명안 등 한족과 기타 민족의 우수한 작가들이 나타났고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전국, 성, 자치주 급의 상을 수상했다. 우리 민족의 문학은 자기만의 농후한 민족적특색과 지리적특색으로 중국문단에 새롭게 알려지고있으며 사실상 그 지역적범위를 훨씬 벗어나 민족문화전통을 발양하는 크낙한 역할을 해왔다. 연변작가협회는 중국조선족문학사업발전의 중임을 떠메고 우리의 문학을 중국주류문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학에 접목하여 형제민족들과 어깨 나란히 중화민족문학화단의 한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났다.

이 대사기를 펴내면서 우리는 당의 옳바른 정책과 민족정책의 지도하에 그리고 우리 작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반성을 거쳐 따낸 문학성과를 여실히 반영하는 한편 극좌로선이 일으킨 정치운동때마다 우리 문단이 겪어야 했던 불운과 고초도 여실히 수록함으로써 력사적인 문학의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여 후세에 교훈으로 남도록 했다.

비교적 완정한 문단기록을 남기기 위해 광복후부터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가 설립되기전까지의 중국조선족문단활동상황을 간략하여 기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창건후 전국문단의 발전상황을 간략하여 부록으로 덧붙임으로써 연변작가협회의 문학대사기에 대한 리해를 돕도록 하였다.

우리 문단의 발전력사를 잘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50년의 력사를 세개 발전단계로 나누었다. 정치운동에 모대겼던 고난의 시기, 가슴 부풀며 맞이했던 희망의 단계, 시장경제의 충격속에서 생존과 탐구를 거듭해온 단계로 나눌수 있다.

우리는 연변작가협회설립 50돐의 헌례품인 이《연변작가협회 대사기》를 비교적 전면적이고 실사구시하게 반영하고저 노력했으나 원시자료의 부족과 자료수집의 한계때문에 수록되여야 할 부분이 루락되였을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인들의 기억에 의존한 기록에 대해서는 일부 당시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에게 량해를 구하는 바이다.

우리는《연변작가협회 대사기》를 편찬해 세상에 내놓으

면서 우리 문학에 대해 한층 더 긍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의 문학은 무서운 정치운동과 경쟁이 치렬한 시장경제속에서도 우리 회원들의 문학에로 향한 열정과 사랑과 의지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힘차게 발전할것이다. 또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킨 력사의 중요한 한페지로 남을것이다. 《연변작가협회 대사기》는 우리 문학의 50년의 우여곡절과 희로애락을 반영하고 우리의 력사를 아로새긴 하나의 리정비이며 후세에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만한 우리 문학발전사에 관한 보고서이다. 우리의 문학을 연구하는 문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백년, 수백년뒤 우리의 문학을 연구할 문인들과 학자들 앞에 우리는 민족문학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애로를 물리치고 힘차게 걸어왔음을,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고있음을 자긍심 가득히 말할수 있다.

이 《연변작가협회 대사기》편찬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준 해당 부문과 여러 문인들에게 깊은 사의를 드린다. 특히 이 《대사기》를 위해 당시 현직에 있으면서 여러모로 애써주신 조성일, 김학천 전임주석에게도 깊은 사의를 드린다.

이 《대사기》가 우리 문단 력사에 대한 진실한 기록과 가치있는 사료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문단을 위해 피땀을 흘려온 선배들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위안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지난날을 반추하는 유익한 교재로 남을수 있기를 기대하는바이다.

2006년 8월 15일
연길에서

차 례

제1부: 1956년-1978년 / 1
제2부: 1979년-1989년 상반년 / 65
제3부: 1989년 하반년-2006년 / 129
부록 1 / 313
부록 2 / 316
부록 3 / 325

제1부: 1956년—1978년

♣ 50년대에 작가 황봉룡(왼쪽 첫번째)이 농촌에 가 생활체험을 하는 기간 농민들과 함께 논밭의 재해상황을 살피고있는 정경.

♣ 50년대에 작가 황봉룡(오른쪽 세번째)과 하명안(한족, 녀)이 농촌에 가 생활체험을 하면서 농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중국조선족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창건전후의 수년동안의 문학활동을 거쳐 1956년에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를 설립했다. 이는 중국조선족의 문학이 중국공산당의 령도아래 중국문학의 흐름에 합류한 중요한 계기이다. 1957년《반우파투쟁》이 시작되기전의 문학은 재조합을 거친 시기이다. 주로 새로운 사회와 시대의 주선률을 보였고 인간들의 새로운 륜리와 도덕관을 선양했다.

1957년에 이른바《반우파》투쟁이 시작되면서 문단의 중견들이 대거 숙청되였고 문단은 된서리를 맞은 동시에 새롭게 구성되였으며 문학이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반우파투쟁》으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